

# 핀란드 평화교육 연구: 제주 평화문화 확산에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진창남\* · 오상준\*\* 김진호\*\*\*

## 〈국문요약〉

2005년 1월 제주도는 국가로부터 '평화의 섬'으로 지정되었다. '세계평화의 섬' 지정의 의미는 제주도가 세계 평화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게 됐다는 점이다. 동아시아 외교 중심지로 거듭나고 국제적인 분쟁을 예방하며, 학술적으로는 분쟁을 구명하기 위한 '평화' 메시지 연구의 중심지 역할을 맡게 된다는 것이다. '평화'는 오랫동안 모든 인류가 보편적으로 지향해 온 이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오늘날에도 주요한 세계적 화두(話頭) 가운데 하나이다. 복지, 평등, 정의의 실현과 함께 생태계의 균형이 구현되는 진정한 발전을 통해 인간과 집단의 가치 및 정체성의 실현을 추구하는 적극적 평화학은 구조적 폭력을 수반하거나 생태계의 균형을 파괴하는 맹목적인 산업화와 지나친 발전을 비판하고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발전의 기본 틀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평화교육은 전 지구적인 위기를 맞이하여 인류의 생존과 평화로운 미래를 위한 세계적 이슈로서 강조되고 있다. '평화의 섬' 지정은 제주로 하여금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움을 추구하고, 도민간의 갈등과 대립이 극복되고 삶의 질을 높이는 평화 및 복지공동체로 만들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제주도가 진정한 평화의 섬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평화의 섬 철학이 도민들의 의식 속에 내면화 할 수 있는 주민운동 방안 내지는 평화시민운동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런 맥락에서 이 글은 세계 평화의 섬에 관한 도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실천과제로서 핀란드의 평화교육 사례를 살펴보고 제주의 평화교육에 벤치마킹함으로써 새로운 방향을 탐색하고자 한다.

주제어 : 세계평화의 섬, 적극적 평화, 평화교육, 지속가능한 개발, 핀란드 평화교육

## 1. 서론

\* 제주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

\*\* 제주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박사과정

2005년 1월 제주도는 국가로부터 '평화의 섬'으로 지정되었다. '세계평화의 섬' 지정의 의미는 제주도가 세계 평화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게 됐다는 점이다. 동아시아 외교 중심지로 거듭나고 국제적인 분쟁을 예방하며, 학술적으로는 분쟁을 구명하기 위한 '평화' 메시지 연구의 중심지 역할을 맡게 된다는 것이다.

'평화'는 오랫동안 모든 인류가 보편적으로 지향해 온 이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오늘날에도 주요한 세계적 화두(話頭) 가운데 하나이다. 복지, 평등, 정의의 실현과 함께 생태계의 균형이 구현되는 진정한 발전을 통해 인간과 집단의 가치 및 정체성의 실현을 추구하는 적극적 평화학은 구조적 폭력을 수반하거나 생태계의 균형을 파괴하는 맹목적인 산업화와 지나친 발전을 비판하고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발전의 기본 틀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평화교육은 전 지구적인 위기를 맞이하여 인류의 생존과 평화로운 미래를 위한 세계적 이슈로서 강조되고 있다.

'평화의 섬' 지정은 제주로 하여금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움을 추구하고, 도민간의 갈등과 대립이 극복되고 삶의 질을 높이는 평화 및 복지공동체로 만들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제주도가 진정한 평화의 섬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평화의 섬 철학이 도민들의 의식 속에 내면화 할 수 있는 주민운동 방안 내지는 평화시민운동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런 맥락에서 이 글은 세계 평화의 섬에 관한 도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실천과제로서 핀란드의 평화교육 사례를 살펴보고 제주의 평화교육에 벤치마킹함으로써 새로운 방향을 탐색하고자 한다.

## II. 평화의 개념과 이론적 분석틀

### 1. 평화의 개념

평화교육이란 넓게 말하면 평화의 이념을 교육을 통하여 실현해 나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향하는 목표로서의 평화의 개념을 정립하는 것이야말로 평화교육의 제일의 필요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평화는 인류가 보편적으로 추구해 온 이념이다. 그러나 평화의 개념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고대 그리스에서는 전쟁을 피하고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을 평화라고 보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평화라고 본다. 평화의 개념은 시대에 따라 변해왔고, 문화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평화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평화는 인류가 보편적으로 추구해 온 이념이다. 그러나 평화의 개념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고대 그리스에서는 전쟁을 피하고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을 평화라고 보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평화라고 본다. 평화의 개념은 시대에 따라 변해왔고, 문화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평화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맥락에 의해 이해되는 경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평화의 개념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란 쉽지 않다. 즉 평화는 사실적 개념이 아니라 가치적 개념이기 때문에 '무엇을 평화로운 상태로 보느냐에 따라 개념 규정이 달라지게 된다. 평화의 개념을 밝히기 위한 언어적, 종교적, 사상적 고찰은 다음과 같다. 그리스어 '에이레네(eirene)'는 원래 사람간의 관계나 태도에 관한 말이 아니라, 지속되는 전쟁 중에 잠시 전쟁을 멈추는 휴전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다.

라틴어로 '팍스(pax)' 또한 갈등적 이해관계에 있는 당사자들 간의 다소 '깨지기 쉬운 합의'를 말하며 로마 어에서 팍스는 '공개적 적대의 부재'로서의 평화를 의미한다. 영어 단어 피스(peace)의 어원은 바로 팍스(pax)이다. 현대 세계에서는 평화나 안전에 대해 더욱 넓게 정의 내리려는, 적극적 평화관에 입각한 분명한 경향이 있지만 여전히 지배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소극적 평화관 즉, 무장된 혹은 강요된 평화인 팍스의 평화관이라고 할 수 있다. 히브리어 '샬롬', 러시아어 '미르(mir)', 산스크리트어 '산티(santi)' 중국어 허핑(和平)은 모두가 평화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강정, 2000 : 6). 하지만 그것은 언어적·문자적 비교일 뿐, '평화'라는 단어에 내재하고 있는 모든 풍요로운 뜻을 밝혀주기에는 부족한 방식이다.

또한 종교적 차원에서 '평화'를 이해한다면, 초기 기독교의 '아가페'는 평화적 관계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것으로서 소유적 사랑이기보다는 비소유적 사랑을 뜻하며, 신약에서의 '평화'는 구약에서의 평화에 덧붙여 수평적으로는 인간과 인간간의,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인간간의 화해라는 새로운 차원의 평화가 첨가된다. 불교의 평화관은 불교의 교리와 실천 가운데 나타나는 '비폭력'과 '불살생'의 개념에서 잘 나타나며, 불교의 세계평화에 대한 접근은 '자기변혁'을 통한 세계변혁을 지향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때 '자기변혁'이란 구호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목적과 과정을 수반하는 것이다.

평화의 개념은 다양한 평화사상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우리의 평화사상은 주로 유교에서 유래하며 평천하(平天下) 즉 평화세계의 건설이

다. 한국의 선각자들은 오래전부터 '사해동포주의(四海同胞主義)'를 외치며 평화수호를 주창해 왔다. 제1차 세계대전까지 서구의 평화사상은 주로 전쟁이나 싸움이 없는 상태 곧 '팍스'나 '에이레네'의 개념으로 평화로 인식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며 그러한 가운데서 '평화와 비평화중 어느 것이 더 근본적인 것이냐'에 대한 논쟁이 있어 왔다. 민주평화론은 현대 평화연구의 중요한 경향 가운데 하나이다.

칸트에 의해 본격적으로 제기된 근대의 평화사상은 현대에 와서 민주 평화사상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다. 러셋(B. Russett)교수는 칸트가 1795년 공화주의 헌법에 기초한 영구평화론을 주장했는데, 그의 의도는 현대 민주주의의 '민주주의는 서로 싸우지 않는다.'는 명제에 대한 이해와 상통한다고 보며, 민주적이 될수록 국가간의 관계는 더욱 평화적이 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다. 함석헌의 평화사상은 '씨울' 사상이어서 "지위도 없이 권력도 없이 그저 땅을 디디고 서서 전체를 위해서, 전체라는 것을 의식도 못하면서 전체를 위해서 봉사하다가, 또 봉사하다가 가는 사람들"이며 이는 본질적 평화로서 음지에서 고난 받는 민중이 평화운동의 주역이 되어 온 세계를 평화의 세계로 이끌 수 있다는 사상이어서 특히 평화교육과의 관련에서 더 큰 의미를 갖는다. 포스트모던 시대에서의 '공동선', 물질만능시대에서의 '정신', 왜곡된 국제화시대에서의 '민족 재발견', 인간성 상실의 시대에서의 '씨울'의 강조는 진정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성을 잘 보여준다. 따라서 평화에 대한 다양함이 평화교육의 성립과 실천에 대한 근본적 장애로 작용하지 않고, 오히려 평화건설의 협동적 노력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서울평화교육센터, 1995 : 19-31). 바로 여기에 본 연구의 의미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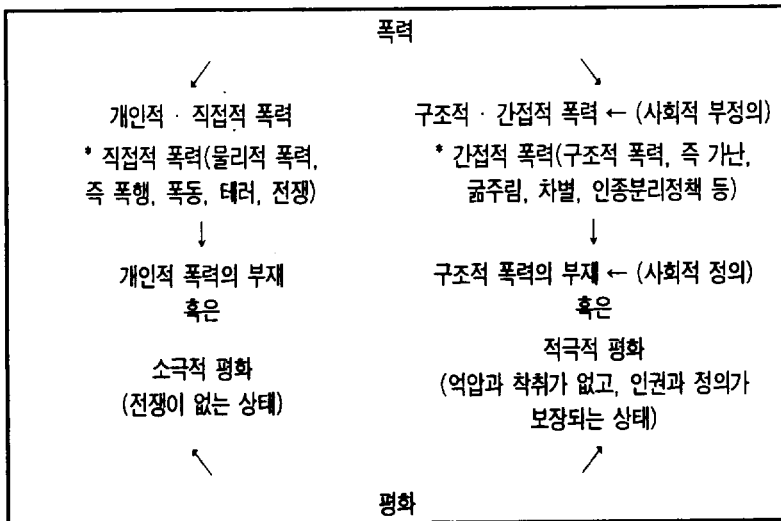
## 2. 이론적 분석들

냉전과 불의와 온갖 모순과 질곡을 모두 보듬어 안고 살아가는 지구촌에서 '서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함께 나누는 공동체'를 만드는 '거룩한 실험(holy experiment)'이라는 괴롭고 힘들지만 영광스러운 과제를 떠맡은 하바드대 4.3이 아픈 상처를 안고 기여고드레에기 기적 평화의 후미

한 지역의 평화교육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 '세계평화의 섬' 논의에 있어서 평화는 소극적 의미의 평화가 아니라, 적극적 의미의 평화로 해석할 수 있다. 적극적 평화는 단순한 폭력 배제의 상태만이 아니라 인간다운 품위를 지킬 수 있는 자유까지가 확보된 상태를 의미한다. 평화학자 요한 갈통(Johan Galtung)은 직접적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정치적 폭력, 구조적 폭력과 심리적 폭력 모두 서로 연관되어 있어, 이 모든 것이 해소되거나 극복된 상태가 평화라고 규정하였다. 평화학의 연구 주제를 전통적인 주제인 전쟁보다는 더욱 광범위한 폭력으로 대체했다.

갈통이 전쟁이 부재한 상태를 의미하는 '소극적 평화'보다는 '적극적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유는 직접적인 폭력인 전쟁뿐만 아니라 기아, 빈곤, 의료시설 부족, 문맹, 인종차별, 무질서 등의 문제 또한 인간의 평화를 방해하고 인간의 대량사를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이었다. 갈통의 '구조적 폭력'개념은 선진국과 후진국간의 남북문제, 즉 종속문제, 빈곤, 기아 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환경오염, 여성평등, 국제난민, 종교갈등, 인종분규 등의 문제들까지도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표 1〉 갈통의 평화의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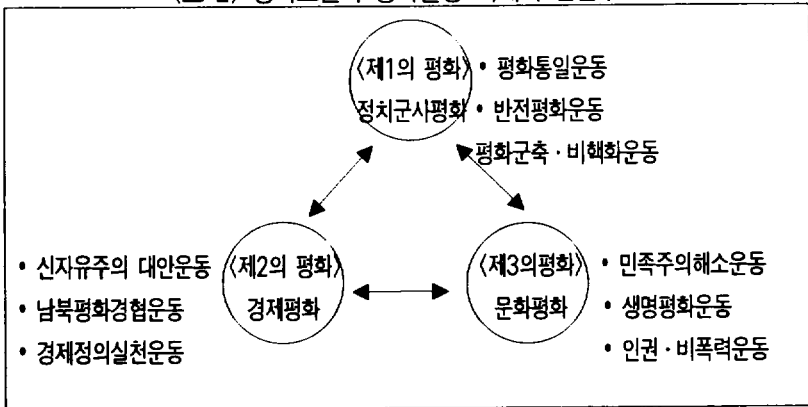
따라서 평화학의 연구범위도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안보학의 변천과정에서 살펴본 냉전질서 붕괴이후 형성되기 시작한 광범위한 안보개념과 평화학에서의 적극적 평화개념이 서로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인류평화에 대한 추구는 평화연구, 평화정책, 평화운동, 평화교육 등으로 추진될 수 있다.

평화운동은 특히 시민사회운동이나 비정부기구(NGOs :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s)등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진행, 확산되고 있는데, 그 운동영역은 반전운동, 반핵운동, 경제정의운동, 환경운동, 국제자선단체운동, 국제난민지원운동 등 그 유형이 다양하다. 평화운동은 '나'를 살리는 자기구제, 인간구원의 생명운동이다. 평화운동은 배픔과 나눔, 상호존중을 통한 평화공존운동이다. 철학과 이론을 넘어 생존을 위한 삶의 실천원리가 바로 평화운동이다. 21세기는 평화운동에 의하여 인류와 생명의 미래가 결정된다.(장영권. 2005. : 34) 2001년 9·11테러와 부시 독트린 이후 한국의 평화운동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위기가 고조되면서 평화통일시민연대 등이 출범하여 비로서 대중성과 전문성을 띠고 다양하게 진행되기 시작했다.

최근 들어 이라크 전쟁반대 운동,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운동, 미군기지 반대 운동 등을 거치면서 평화운동은 점차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하며 발전하고 있는 중이다. 한국 평화운동 15년의 전개와 성과를 제1평화의 조건인 정치·군사평화, 제2평화의 조건인 경제평화, 제3평화의 조건인 문화평화에 관하여 살펴본다. 전통적인 평화운동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제1의 평화인 정치군사평화인 전쟁의 예방과 중지, 전쟁기구(war instruments)의 해체, 군비축소, 전쟁원인의 제거 등에 초점을 두어 왔다. 이러한 평화운동은 21세기 한반도에서 여전히 중요하고 타당하다. 그러나 '비평화', '적극적 평화', '구조적 폭력' 등의 중심이 되는 제2의 평화인 경제평화의 관점에서 볼 때 경제적 불평등, 빈곤, 착취와 수탈, 환경파괴 등도 새로운 평화운동의 영역으로 등장하고 있다. 더구나 성차별과 인종 차별, 인권침해, 인종적 종교적 갈등과 민족문제, 식민주의와 원주민의 소외 등 종교이념 가치와 관련된 제3의 평화인 문화평화운동을 막라하며

평화운동의 영역은 실로 광범위하며 다양하고 중층적이다(장영권, 2005 : 36-47). 평화운동이 자각된 평화운동가들에 의하여 반평화세력을 대상으로 행하는 운동이라면, 평화교육은 모든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표 2〉 평화조건과 평화운동 의제의 연결구조



출처 : 장영권, 2005 : 47

이삼열의 글 ‘평화교육의 철학과 실천방안’에 따르면, 평화교육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에 봉착하고 있다(김명섭·조성대·진시원, 2004 : 245). 첫째, 평화교육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천방안이 막연하다. 이는 평화의 개념에 대해 합의된 정의가 없는데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평화를 전쟁이 없는 상황이라고 소극적으로 해석하면 평화교육의 내용 또한 협소해지고 결국 평화교육이 안보학이나 전략하고 동일하게 인식될 수 있다. 반면, 평화를 구조적 폭력이 없는 상황이라고 전제하면 평화교육의 내용은 너무나 광범위해진다. 둘째, 평화교육이 개인의 도덕성 향상과 공격적인 심리성향의 교정에 초점을 맞춘다면 평화교육의 목적은 달성되기가 용이하지 않다. 개인의 심리성향과 도덕성 등은 교육에 의하여 쉽게 바뀔 수 있는 성질이 아니기 때문이다. 셋째, 평화교육이 사회구조와 국제관계의 부하처럼 언어구조 등의 개선은 추구한다면 이것 또한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즉, 사회구조와 제도 그리고 국제체제의 변혁을 이루기 위하여 평화교육이 할 수 있는 일은 단지 개인에의 교육뿐이다. 그러나 개인에의 교육이 어떻게 고착화된 사회와 국제체제의 억압과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평화교육은 인류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점진적이고 적극적인 방안임에는 틀림없다고 할 수 있다.

### III. 핀란드 평화교육이 주는 시사점

#### 1. 핀란드의 평화학에 대하여

핀란드 평화학 태동의 결정적인 원인은 바로 주변 스칸디나비아 국가들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1959년, 평화와 갈등에 관한 노르웨이 연구소(Norwegian Institute for Samfunnsforskning)가 설립되어 오슬로 국제평화연구소(PRIO: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of Oslo)로 성장하였다. 노르웨이의 갈통(Galtung)을 창시자로 하여 평화연구의 아이디어를 증식시키는 매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1962년 노르웨이에서 개최된 노르딕 섬머 아카데미(Nordic Summer Academy) 및 이듬해 노르딕 평화컨퍼런스(Nordic Peace Research Conference)가 개최되기도 하였다. 핀란드에 대한 외적 자극들은 1960년대 핀란드의 새로운 러셀리안 평화운동의 기초를 세우는 등 분명히 긍정적인 작용을 했으며 젊은이들에게도 확산되었다. 내재적 요인으로서 핀란드 젊은 사회학자들의 평화와 갈등연구에 대한 관심과 1960년대의 '지적 분위기(Intellectual Atmosphere)'는 사회적 낙관주의 혹은 그 부분으로서의 과학적 낙관주의로서 과학의 가능성을 믿고 있었으며, 경제적 성장으로 인한 자신감으로 인해 이 분야에 대한 합리적인 기획과 자원을 받아들였던 것이다. 중립정책의 실현은 평화연구에 대한 보다 풍성한 토대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진다. 이상과 같이 평화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핀란드인들의 광범위한 이해가 조성되었다.



갈등, 그 원인과 배경, 갈등해결의 방법, 국가와 평화의 존속을 위한 조건들이다.” 둘째는, 핀란드가 국제적으로, 특히 북유럽의 발전에 뒤쳐져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셋째는, “우리 조국에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우리 조국에 평화와 갈등연구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1968년 봄 당시 가장 활발한 사회과학연구센터로 알려진 탐페레(Tampere)가 최적이라고 정평이 난 탐페레평화연구소(TAPRI: Tampere Peace Research Institute)는 1970년 가을 활동을 시작할 수 있었는데 TAPRI 설립초기에 평화운동신문인 “이딘(Ydin)”지는 평화연구에 대해 그 중요성을 끊임없이 역설했다는 사실과 이미 오래전부터 평화연구의 중요성이 핀란드에서 광범위하게 인식되었다고는 하나, 평화연구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적 통일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다.(Vesa, Unto. 1982/83, "Peace Research in Finland. Domestic Spirits in Imported Bottles, Or Vice Versa ?" : 108-115).

## 2. 핀란드 평화연구에 대하여

핀란드에서는 TAPRI만이 공식적인 평화연구기관이라는 것이다. TAPRI는 주로 개인적인 연구자들이나 특정기관의 이익에 의존하지 않는다. 국가적으로 매우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수행하는 연구에 지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TAPRI의 연구에 두 가지 중요한 정책이 반영되었는데, 하나는 무장과 비무장에 관한 연구이며, 또 다른 하나는 구조적 폭력의 범주에 속하는 지배, 독립, 국제체계 속에서의 저개발과 발전의 문제를 다루는 연구가 진행된 것이다. 세 번째 연구는 핀란드 안보정책의 다양한 하위영역에 관한 특히 방어정책이나 비무장정책 그리고 발전협력정책 등과 같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1960년대의 위원회가 결성되기까지 역사학자들마저도 평화학에 관심을 두지 않았으며, 법학이나 심리학자와 같은 특정학문분야의 종사자들만이 평화와 갈등이라는 테마에 천착해왔다. 그러나 핀란드 평화연구에서 적어도 TAPRI외에도 국제정치학이나 정치과학을 다루는 3개의 주요대학들

행한 평화연구의 진척이 매우 적기 때문에 국제정치학에서 지금 평화학이 갖는 위치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핀란드 평화연구의 특징으로 두 가지가 언급되었다. 첫째, 평화학의 기원은 이론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모두 스칸디나비아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이다. 둘째, 연구의 대부분은 국제정치학의 경험적 연구, 소위 '구조주의'에 의해 도출되는 국제정치의 지구적 문제에 치중해왔다는 점이다. 행위자의 동기를 통한 행태분석과 같이 특정 행위자에 대한 특별한 제안들이 공통적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핀란드 평화연구 혹은 여타의 국가나 기관에서 수행한 연구들의 역할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며 매우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지식의 전달 혹은 변환을 통하여 새로우면서도 과학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Vesa, Unto. 1982/83, "Peace Research in Finland. Domestic Spirits in Imported Bottles. Or Vice Versa ?" : 116-122).

### 3. 핀란드 평화 교육에 대하여

인류에게 있어서 평화의 문제는 생존을 위한 매우 시급한 명제이기 때문에, 평화교육의 방법 그리고 기술, 태도, 행동양식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체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제는 평화추구에 있어서 과연 적극적인 평화교육이 무엇인가이다. 평화교육은 대체로 학교교육이나 공식적인 기관의 일로 여겨지고 있으나 실상은 일반대중 전체의 평생교육 또는 의식제고운동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단순히 평화는 전쟁의 부재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되며, 안보, 개발, 인권 그리고 사회발전과 같은 보다 폭 넓은 개념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70년대 국제적 논쟁이 커다란 조류가 되었던, 핀란드에서도 평화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첫 번째는 평화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평화교육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일반적으로 증대해왔고, 이 분야에 대한 연구도 놀랄 만큼 성장해왔다. 우리는 주요한 2가지 평가를 할 수 있다. 첫째, 핀란드에서 행해진 연

련되어진 부차적인 논문들이 더욱 많았다는 점, 두 번째는 평화교육에 대한 관심이 최근에 들어서면서 더욱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핀란드 평화교육을 위한 제도적 프레임워크에 관해 몇 가지 첨언이 필요하다. 핀란드의 국제지향적 교육에 대한 압력은 주로 국가UN연합회(National United Nations Association)가 담당하여 왔고, 대다수의 출판물과 보고서들은 물론 실제적인 것들이며, 평화교육분야에 대한 연구를 독려함은 물론 이 기구의 기능이 보다 '연구중심'적인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Vesa, Unto, 1983, "Research on Peace Education in Finland" : 126-128)

### 1) 평화교육의 개념과 범위

교육부의 워킹그룹에 의하면, 국제이해교육의 목적은 사람사이의 우정과 평화, 그리고 국제적 책임의식의 고양과 억압받는 사람들에 대한 연대의식, 사람과 민족간의 평등의식이다. 아울러 이러한 목적의 완수를 위한 행동이라고 밝히고 있다. 많은 학자들과 기관 및 평화단체들은 최근 평화교육에 필요한 네 가지 요소로 정보, 기술, 태도, 행동이라고 말하고 있다. '평화교육'의 폭넓은 개념, 즉 '국제적 이해를 위한 교육'에서 보다 기술적으로 강조된 것들이다. 1974년 UNESCO는 '인권과 항구적인 자유를 위한 국제이해, 협력 그리고 평화를 위한 교육' 권고안을 채택했으며, 그 권고안 자체에서 사용된 개별적인 용어들이 합쳐져서 '국제교육'의 함축적인 의미를 담아내고 있는 것이다. 핀란드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측면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첫째는 '안보교육'으로서, 초기에는 '심리적 방어'의 개념으로 사용되었으며, 주로 군사적 접근법과 보수주의자들이 사용하는 개념이다. 두 번째는 '인류애 혹은 이상주의적' 교육을 펼치는 것으로 주로 국제주의의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세 번째는 '평화교육'의 용어를 처음으로 채택한 이들로 주로 '비판적 혹은 급진적' 평화 교육론이다.

핀란드의 외교정책이 적극적이고 평화적인 중립정책을 펼쳐오면서, 특히 데탕트시절에 거센적으로 자유화되고 서로 다른 사회체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과 독자적인 선린우호관계를 만들어 왔다는 점에서 평화교육의 훌륭한 가치를 만들기도 하였다. 유럽대륙의 평화교육에서는 3가지의 이념형으로 구분되는데, 이상주의적 평화교육은 주로 관념론적 차원에서 평화를 다루며, 평화교육의 목적 또한 개인들의 사회적 기술 특히 사람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반면 비판적 평화교육은 사교의 구조, 인간에 내재된 사회정치적 실체를 해석하는 방법 등에 관심을 두며, 전쟁과 평화의 실질적 문제들을 분석하고 학습하는데 목적이 있다. 세 번째 이념형은 앞서 언급한 UNESCO권고안에 대한 핀란드 학자들의 견해와 유사한 것으로, 연구자들 사이에서 가장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 유네스코권고안은 지역사회에서의 행동준칙과 같은 거시적 차원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 물론 지구적, 개인적, 국가적 수준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문제나 갈등을 다루기 때문에 평화교육의 개념화에는 원칙적으로 이견이 없다. 이러한 '절충적' 모델은 지구적 평화교육과 거시적 차원의 평화교육의 문제점들을 상호 연관시켜 분석할 수 있게 함으로서, 경험적 연구를 통해 때때로 매우 흥미있는 결과물을 도출해내기도 한다. 공통적으로 중요한 것은 어린이들의 각기 다른 연령대별로 고려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고, 각기 다른 방법으로 각기 다른 이슈들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UNESCO권고안에서 제안되었듯이, 평화교육은 전체적인 국가교육체계 속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즉, 교과과정의 편성 시, 지역사회와 전 세계적 문제점들에 정통한 이들을 활용해야 하며, 교재들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한다. UNESCO 권고안은 '인류의 주요 문제의 학습'에 초점을 맞추면서, 평화교육은 "인류생존을 위협하는 주요 문제를 제거하고," 동시에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도울 수 있는 국제적 협력의 수단"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 권고안에서는 평화교육의 주요 영역을 다음의 7가지로 예시하고 있다. 인간의 평등권과 자결권, 비무장과 국제적 협력을 포함하는 전쟁과 평화의 문제, 인권, 지구적 발전, 생태문제, 세계문화유산, 문제해결을 위한 UN의 행동 방법들과 역할의 항목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핀란드 평화교육의 범위를

결정짓는 출발점 및 실제 적용수단의 기초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발전교육'이나 '인권교육' 혹은 '비무장교육'의 개념화를 구성하는 논리적 기초를 제공하며, 모든 평화교육의 하위범주로 삼고 있다.((Vesa, Unto, 1983, "Research on Peace Education in Finland" : 128-132)

## 2) 평화교육의 세계관과 태도

대부분의 핀란드 평화교육은 세계를 바라보는 태도와 시각에 관련되어 있다. 일부는 순수한 분야별 크로스 연구를 시도하며, 일부는 태도를 결정짓는 사회적 과정과 환경을 중요시 한다. 일반적으로 개도국 실체의 경험은 직접적이고, 개인적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2차적인 정보에 대부분 근거하고 있다.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은 직접 경험을 통해 이들 국가에 기초한 경험론적 세계관을 만들게 된다. 개도국에 대한 관념(Ideology)은 보다 일반적인 관념의 일부로 볼 수 있으며, 자신을 둘러싼 환경의 실체에 의해 영향을 받는 실질적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평화교육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지구적 문제를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대부분은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에 기초하여 자신들의 견해나 태도를 결정한다. 가족, 학교, 비정부기구, 보고서, 대중매체 등을 포함하는 하나의 기관(Agent)들이 이러한 이슈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게 된다. 이들 기관 중에서 특히 대중매체의 역할은 그간 체계적으로 연구되어 온 반면, 그 외의 기관들에 대해서는 산발적인 정보만이 있을 뿐이다.

연구결과에는 몇 가지 흥미로운 결과들이 더 발견된다. 연구자들은 어린이들의 시간적 전망(Time-Perspective)이 최소한 역사와 관련해서는 매우 짧아지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또 다른 사실은 오늘날의 어린이들이 사회와 세계를 보는 시각이 보다 정보 지향적으로 보이며, 이전보다 훨씬 사물의 본질을 꿰뚫고 있음을 보여준다. 몇몇 응답자들은 사실의 해석에 있어 종교적 영향을 받기보다는 점점 합리적인 사고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어쨌거나 가치와 태도의 변화는 상당한 수준이라는 것이 주목할 만한 일이다.

전쟁과 평화에 대한 아이들의 생각 또한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타피오 누멘마(Tapio Nummenmaa)는 5살에서 10살 사이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어린이들은 전쟁의 행동 양식으로 발포(Shooting), 폭발(Bombing), 싸움(Fighting), 살인(Killing), 죽음(Dying)을 떠올리고 있으며, 몇몇 응답자는 셧터를 빼앗는 행위라고 대답한 경우도 있었다. 핀란드 평화교육에 관한 가장 의미 있는 연구로는 탐페레 평화연구소가 지원한 앙제스트롬(Yrjö Engeström)의 '평화교육의 관점에서 바라본 학교어린이의 행태와 상상력'일 것이다. 그는 전통적인 질문지 방식이 갖는 조사의 문제점을 피하면서 구조화된 틀을 보다 유연하게 이용하기로 결정했다. 아니카 타카라(Annika Takala)가 만든 학교청소년의 사회윤리의식개발 차트에서는 인종편견이나 원자폭탄과 같은 국제적 이슈들에 대한 다양한 태도의 차이는 사회유형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나타냈다. 우호적 학생들은 편견이 적은 반면, 공격적 성향이 강한 학생들일수록 편견 또한 심하다는 것이다. 행동패턴과 관련이 있는 사회발전과 태도는 평화교육의 견지에서 전체 인성개발에 매우 중요한 부분임을 말하고 있다. 공격적인 행태에 대한 연구가 평화교육의 관점에서 거시적으로 적실성이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 핀란드에서는 그간 폭력적인 학생, 서로 괴롭히는 학생들, 비정상적 학생들에 대한 일련의 연구들이 있어왔다. 이들 연구들은 한결같이 그간 예상한 것보다 훨씬 학교 폭력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괴롭히거나 '폭력적'이라는 것은 대부분 언어적일지 몰라도 상당수는 물리적 폭력인 것이다. 이 수준에서의 갈등해결이 갖는 의미는 향후 지구적 이슈들에 대한 태도의 발전과 관련하여 함의를 주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조사를 보면, 세계대전의 위험성이 최대의 관심사이며, 그 다음이 지역전쟁, 그리고 기근이 저개발이다. 이것은 국제정세를 매우 비관적으로 보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저개발에 대한 발전협력의 이유가 사람들의 개인적인 특성이라기보다는 합리적이고 국제적인 공조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에 연구의 초점이 맞추어져 온 것이다. 또한 보다 일반적인 차원에서 연구가 이루어지자. 비록 덜 배운 사람들보다 비관적일지

라도, 개인적이든 집단적이든 간에 행동해야 할 책임에 대해 수용할 여지가 높은 지식인층을 대상으로 행해져 온 것이다.(Vesa, Unto, 1983, "Research on Peace Education in Finland" : 132-138)

### 3) 평화교육의 실험

비록 평화교육의 중요성이 제고되었다거나, 그간 핀란드에서의 교육분야의 연구가 상당히 확장되었다고는 하나, 구체적인 평화교육의 경험적 연구는 매우 적었다. 무엇보다도, 몇 안되는 평화연구조차도 주로 애매모호한 결과들을 도출했으며 이는 주로 실험의 시간주기가 너무나 짧았기 때문이다. 연구자들은 학교정규프로그램에서 실험을 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매우 짧아서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정보의 전달이 매우 산발적으로 이루어짐으로서 세계관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평화교육은 모든 교과과정의 내용이 통합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실험들은 정치적 사회화에 집중된 의도하지 않은 결과들을 산출해낸다. 연구자들의 목적은 정형화된 편견이나 선입견에 대해 균형 잡힌 정보와 대상의 영향을 연구하는 것이었다. 많은 연구를 통해서 우리는 대중매체가 커뮤니케이션의 '주류'로서 이러한 정형적인 사고나 이미지를 창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Vesa, Unto, 1983, "Research on Peace Education in Finland" : 138-140)

### 4) 평화교육의 시사점

핀란드의 교육연구자들은 정치학적, 심리학적, 교수법 등에서 매우 풍성한 전통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평화교육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최근에 이루어졌으며, 그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예상 밖으로 다양한 분야가 있음도 명백하다. 1974년 유네스코 권고안은 이러한 맥락에서 연구가치가 있는 많은 문제점들을 언급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다양한 수준에서 어떻게 지구적 문제점들을 다룰 것인가? 공식적, 비공식적 차원에서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지, 교수법에서 평화교육은 어

장 적합한 방법은 무엇인지, 학생들의 참여방안과 국제교류프로그램이 태도에 무슨 영향을 미치는지 등이다. 아마도 교사들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어떻게 하면 어린이들의 미래에 대한 믿음을 깨뜨리지 않으면서 현실세계를 정직하고 실질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이다.

핀란드 연구자들(국가유네스코위원회와 협력하는)은 평화교육의 지침서들을 만들어왔고, 국가UN연합회(National United Nations Association)는 계속해서 평화교육을 담당하는 기관들에 자료를 제공해오고 있다. 핀란드는 다국적인 노력을 통해 평화교육의 초기 일세대들이 만들었으며, 다분히 부정적이며 그릇된 정보들을 담고 있는 교재들을 개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최초의 국가들 중의 하나이다. 평화교육의 중요성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교육자나 연구자에게 있어서 평화추구를 위한 적극적인 교육법을 만족시킬 수 있는 지구적 접근법과 최적의 방법론은 아직도 도전의 대상이다. 결론은 이 분야에 대한 국제적 협력과 경험의 교환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이다.(Vesa, Unto, 1983, "Research on Peace Education in Finland" : 140-141)

#### IV. 제주의 평화교육의 현주소와 방향 탐색

##### 1. 평화교육의 개념적 이해

평화의 이념을 교육을 통하여 실현해 나가는 것이 평화교육이다. 이는 국제이해교육, 군축교육, 반핵교육, 개발교육, 다문화교육, 환경교육, 인권교육은 물론 세계연구, 미래교육, 정치교육, 가치교육, 의식화교육, 해방교육, 대안교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소재들이 다루어지고 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인 우리나라에서는 통일교육도 평화교육의 한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다.

소극적 평화 및 적극적 평화의 개념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다양한 소재들은 입장에 따라 '알리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소극적 평화교육과 '비판적 안목은 갖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적극적 평화교육으로



구분된다. 소극적 평화교육은 신체에 대한 폭행, 테러리즘, 혹은 전쟁과 같은 물리적 폭력이 없는 상태인 소극적 평화에서 출발한다. 알리는 것이 목적, 즉 무엇인가에 대해 정보를 줌으로써 문제를 막아보자는 것이다. 적극적 평화교육은 직접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가난, 기근, 인종차별 등 구조적 폭력의 부재를 의미하는 적극적 평화에서 출발한다. 문제의식 또는 비판적 안목을 갖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최근에는 전쟁의 방지를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평화유지 및 증진을 위해서 행해지고 있는 국제상호간의 이해와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 존중을 넘어 비평화의 원인 제거에 이르는 교육으로 그 의미를 확장시키는 것이 추세이다.

## 2. 평화교육의 동향

평화교육은 크게 세 가지 흐름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서구에서는 1950년대 중반에서 말까지의 국제적 갈등을 개인의 다른 나라에 대한 인식에서 연유한다고 보는 평화관과 1950년대 말에서 1960년대 초반까지의, 국제적 갈등을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국제체제에서의 정치·경제적 경쟁에서 그 원인을 찾는 평화관이 국제이해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학교 현장에 수용되었다. 또한 베트남 전쟁, 1960년대의 학생운동, 선진국과 제 3세계간의 점증적 격차 등의 분위기를 타고 1960년대 말에서 70년대 초에 나타난 비판적 평화연구가 교육 현장에 수용되어 비판적 평화교육으로 나타난다. (고병현, 1994 : 37-38)

### 1) 전통적(보수적) 평화교육(1950-1960년대)

제 1차 세계 대전 이후 유럽에서 평화에 대한 대중적 인식을 심기 위해 대중 계몽적인 집회, 토론회, 출판물 등을 통해 평화를 교육하려는 운동에서 출발한 것으로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 UNESCO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다. 전쟁당사국간, 전쟁의 가능성이 있는 국가 간 나아가 세계대전으로의 발발을 막기 위한 편견의 극복을 통한 상호이해증진에 초점을 두고 있다.

## 2) 비판적 평화교육(1970년대 이후)

비판적 평화교육은 현대 사회의 다원적인 사회양상에 맞는 교육의 다원적인 평화에의 접근을 주장하며, 현대의 인류가 안고 있는 네 가지 비평화의 현상, 즉 공격성, 폭력성, 갈등성 및 편견성을 개인, 사회, 자연과 우주적 차원에서 시정함으로써 정의롭고 아늑한 질서를 회복 또는 건설 하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비판적 평화교육은 비평화의 원인을 구조적 폭력과 부정의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3세계의 입장에서의 세계 평화로까지 확대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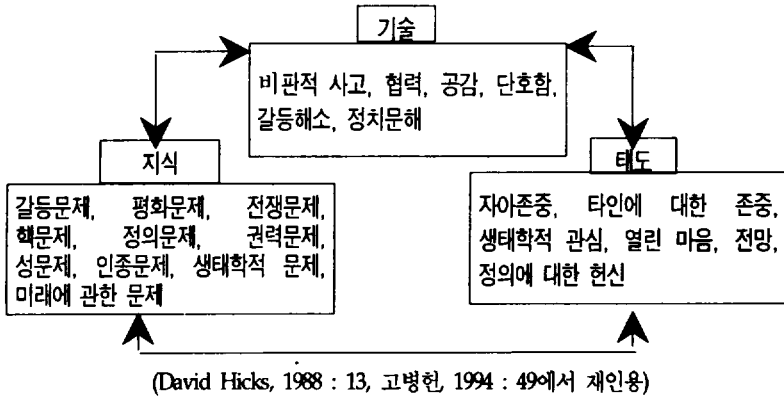
## 3) 제 3세계 평화교육(1970년대 이후)

평화의 의미가 각 시대, 각 문화권에 따라 다를 뿐만 아니라 같은 문화권 내에서도 중추부와 주변부는 전혀 다르며, 따라서 평화교육은 각각의 사회마다 자신들의 특이한 방법으로 행해져야만 하고 그것을 위한 독자적인 방법을 발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제 3세계의 평화는 완전한 자주적 독립에 기초한 민중이 건강한 공동체문화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는 교육적 지표 또한 자주적이고 주체성 있는 교육과 공동체적 삶에 초점이 두어진다(김정환, 1988 : 1-28).

## 3. 평화교육의 주제 및 유형

영국의 평화교육학자 David Hicks는 평화교육이 다루어야 할 기술의 측면에서는 비판적 사고, 협력, 공감, 단호함, 갈등해결, 정치문제 등의 주요 주제들을 기술, 태도 및 지식으로 분류하여 평화교육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태도적 측면에서는 자긍심, 타인 존중, 생태학적 관심, 열린 마음, 전망, 정의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여야 한다. 지식의 측면에서는 갈등, 평화, 전쟁, 핵문제, 정의, 권리, 성차별, 인종차별, 환경, 미래에 대하여 이해하여야 한다.

<그림 1> 평화교육의 학습목표



이러한 평화교육은 지역적, 세계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이름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다양한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는 평화교육의 유형을 분류하면 다음의 <표 3>와 같다.

<표 3> 평화교육의 유형별 분류

| 제 1부류   |        | 제 2부류   | 제 3 류     |
|---------|--------|---------|-----------|
| 반파시즘 교육 | 세계이해교육 | 인식고양    | 공동체형성교육   |
| 다문화교육   | 인권교육   | 갈등처리    | 공존을 위한 교육 |
| 문화연구    | 문화간교육  | 갈등해소    | 평화정신교육    |
| 개발교육    | 국제관계교육 | 시민교육    | 간디연구      |
| 군축교육    | 해방교육   | 민주주의 교육 | 도덕교육      |
| 생태교육    | 세계연구   |         | 평화연구      |
| 국제이해교육  | 쟁점교육   |         | 가치교육      |
| 상호이해교육  | 정치교육   |         |           |
| 환경교육    |        |         |           |

출처 : 고병헌, 1994 : 53

제 1부류에 속한 것들은 '파시즘', '환경 파괴', '군비경쟁' 등과 같은 문제 지향적 성격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식이며, 제 2부류는 '기술'

의 영역에 속하는 것들이고, 제 3부류에 속하는 것들은 지향해야 할 ‘가치’에 초점을 맞춘 교육이다.

제1부류와 제2부류를 합하면 그것은 넓은 의미의 정치교육이 되며, 따라서 평화교육은 궁극적으로 정치교육과 가치교육이라는 두 가지 성격을 갖게 된다.

평화교육이 정치 교육의 성격을 갖는다함은 평화교육이 다루어야 할 세 가지 학습목표인 ‘지식’, ‘기술’, ‘가치’ 중에서, ‘지식’과 ‘기술’은 넓은 의미의 정치의 마당인 삶에서 겪게 되는 현실적 갈등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서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자율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인간을 육성하는 것을 지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평화교육이 가치교육의 성격을 갖는다함은 자율적 비판의식을 통하여 인식된 문제에 특정한 해결방향을 주는, 특히 환경, 핵과 같은 인류를 근본적으로 말살시킬 수 있는 총체적 위기상황에서 개인적, 집단적 이기주의를 벗어나서 인류의 지속적인 삶과 미래 세대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의 공동 노력을 가능하게 해주는 대안적 가치를 모색하고 교육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병헌, 1994 : 54).

#### 4. 제주도 평화교육 활성화 방안

핀란드는 적극적이고 평화적인 중립 정책을 펼쳐오면서 강대국은 물론 주변국간에도 선린우호관계를 지녀왔다는 점에서 평화 컨셉(concept)의 면모를 엿볼 수 있다. 학교 현장에서의 평화교육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주도에서는 평화교육에는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여기서는 제주도에 평화가 정착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평화교육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평화의 창출, 확산 및 정착을 위한 제주도 학교 교육에서의 평화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 1) 평화교육의 필요성

현재 우리의 학교는 여러 가지 비평화적 모습들이 존재하고 있다. 학교는 변혁되는 세계와는 동떨어진, 그리고 단편적, 고립된, 소수적, 비논리

까지 학생들을 잡아 두는 감옥 같은 곳이 되었고, 한 번의 입시로 승부를 결정하는 선발 제도와 그로 인한 중압감, 그에 따라 학생·교사·학부모 모두가 끊임없는 경쟁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비인간적 구조 등으로 인하여 학교 안과 학교 주변에 폭력이 만연하며, 많은 학생들이 이제는 학교를 거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박보영은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박보영, 1998 : 14).

먼저,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교육이 기초하고 있는 양적 성장주의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 교육은 '보다 많이, 보다 빨리, 보다 편하게'라는 가치 지향 아래 학생들에게 세상은 무한 경쟁의 싸움터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학교는 이미 학생들을 상품으로 만드는 공장이 되어버렸고, 입시는 그 불량여부를 판정하는 과정이 되었다. 그 결과 공동체 의식은 사라지고 극도의 이기주의가 만연하고 있다. 둘째, 입시위주의 교육을 들 수 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상위권 학생들의 들러리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학교·가정·사회에서 아무에게도 존중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삶의 의미와 희망을 상실하고, 주변부적 삶을 살며 파괴적인 가학과 자학, 그리고 극단적인 경우 자살을 시도하고 있다. 셋째, 교육 현상에 내재된 파괴적인 관계이다. 우리 사회에서 교육은 권위주의적 문화에 기초하여 학생들을 동등한 인격체로서 존중하지 않고 위계질서 속에서 성인들이 정해 놓은 규범의 틀 속에서만 생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넷째, 지식 위주의 교육이다. 우리 사회에서 교육은 지혜가 아닌 지식을 가르치고 이으며, 학교는 지능훈련의 기관으로 변질되었다. 이러한 지혜가 아닌 지식을 가르치는 교육은 생활과 교육을 분리하고 사물에 대한 파편적 지식만을 가르쳐, 세계를 끝없이 조각내게 하여 종합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원인들이 상호 결합되어 총체적인 비평화의 구조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이러한 총체적 위기에 대하여 이제 교육도 인류가 생존을 지속시키며, 현재 우리의 인간다운 삶에 대한 권리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권리까지도 보장하기 위해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에 대한 답변이 동시에 또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신념이 그려진 것이 평범한

육이다. 이러한 시대적 필요성과 함께, 제주도에서는 제주도가 「평화의 섬」으로 지정되고, 이를 추진 및 평화의 창출, 확산 및 정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고 있는 상황에서 평화의 창출, 확산 및 정착을 위한 평화교육의 필요성 및 중요성 더욱 커지고 있다.

## 2) 제주의 평화교육의 현주소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제주도의 경우에는 이러한 평화교육의 필요성 및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나, 현재까지 제주도에서는 제주도의 특성이 반영된 평화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으며, 전국적인 경향과 동일한 형태로 평화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학교 교육에서의 평화교육은 민주시민교육, 인성교육, 환경교육, 이웃사랑교육, 통일교육, 국제이해교육 등의 범교과교육과 도덕·윤리 및 사회과 등이 중심이 된 교과 교육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평화교육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즉, 동북아시아에서 일본을 제외하고는 평화교육 및 평화 관련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며, UNESCO 한국위원회에서 나온 국제이해교육의 소개 등이 소개되고 있을 뿐 실제 학교현장에서는 평화교육적 모습을 찾기는 어렵다(이근혁, 1990 : 36-59).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의 평화교육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의식화 교육'이 주류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식화 교육은 남미의 민족 해방 교육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으며, 일제 식민지하에서의 민족해방을 위한 노동야학을 통하여, 그리고 해방 이후에는 '피억압자를 위한 교육'의 성격을 지니는 생활야학이나 혹은 의식 있는 교사의 개별적, 소집단적 노력에 의지하여 왔으며 여기에 덧붙여 한국의 특수한 평화교육의 실천으로는 분단현실로부터 나온 통일 교육을 들 수 있다. 1990년대 중반이후에는 평화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한 일부 학자들 사이에서 평화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평화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시도되었으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대안교육으로서의 평화교육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대안 교육은 현재의 우리나라의 교육에 대한 비판 및 불신 등 교육에 대한 시대적 도전에 대한 교육실천적 대응으로, 학교교육의 한계에 대한 의식 증가 및 비판적으로 교육체도의 기능과 그 제도들 안에 포함되어 있는 폭력 구조들에 관심을 두고 있다. 대안교육은 노작 교육과 인간화 교육, 그리고 체험을 통하여 자연의 질서와 법칙을 학습하고 그 속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것 학습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각자의 개성의 실현에 있다는 정체성과 주체성 확립 교육, 교사와 학생간의 인간적인 관계의 정립, 환경교육, 미래교육, 인권교육 등이 강조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평화연구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과 연구 성과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평화학으로의 정착이 점차 이루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 평화교육 관련 성과물들도 배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외국의 경향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평화교육은 통일교육 쪽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제주도의 상황은 더욱 더 그러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제주도가 추구하고 있는 「평화의 섬」이 제대로 추진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종 정책 및 가시적인 사업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평화학을 탄생시킨 원천으로서의 평화운동과 평화교육에 대한 관심 증가 및 이 쪽으로 되돌아갈 필요가 있다.

### 3) 제주의 평화교육의 문제점

제주 평화의 섬 만들기는 집합적 주체의 의식적 실천을 통해 한 “지역”을 평화의 공간으로 만들고자 하는 “평화운동”이다. 제주도가 가지는 지경학적, 지경학적, 지문화적 성격을 고려할 때, 평화의 섬 만들기는, 평화지향적 한반도의 미래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교류협력거점화 모형, 경제 특구화 모형, 평화 지대화 모형의 세 모형을 담고 있는 평화의 섬 제주 만들기는, 목표의 측면에서는 반전·군축운동이면서 동시에 평화문화운동과 평화교육운동의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평화의 섬 제주가 평화연구, 평화교육, 평화문화의 확산을 위한 교류협력거점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생태주의적 가치를 평화의 섬 만들기에 접목하려 한다는 점에서 평화의 섬 제주 만들기는 생명·평화운동에도 근접해 가고 있다. 평화의 섬을 남북한의 화해와 협력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려 한다는 점에서 평화의 섬 제주 만들기는 통일운동의 한 부분이기도 하고, 국제평화연대의 공간을 마련하려 한다는 점에서 국제주의적 성격도 가지고 있다. 국제연대가 없다면, 평화의 섬 제주 만들기는 불가능할 것이다. 평화의 섬 제주 만들기가 “총체적 평화운동”의 성격을 가지는 이유는,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지경학적, 지문화적 공간의 변혁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구갑우, 2005 : 81-83)<sup>1)</sup>

현존하는 세계평화의 섬 추진 전략들은 평화교육의 측면에서 볼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평화교육에 대한 이해 및 기반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에 있다. 타 사·도의 경우에는 그나마 각종 평화교육 센터가 만들어지고, 일부 연구자 및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평화교육적 측면에서 대안학교 및 생태 운동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제주도의 경우에는 평화학의 측면에서만 평화에 접근하고 있을 뿐 평화교육의 측면에서의 평화에 대한 접근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제주도는 평화의 창출, 확산 및 정착 단계로 나누어 「제주 세계평화의 섬」을 추진하고 있으나 추진 과정에서 각종 행사 개최에만 치중하고 있는 느낌을 주고 있다. 즉, 제주평화포럼 개최, 동북아평화연구소 설립, 남북교류 활성화 및 국제기구 유치 등과 활동은 「평화의 섬」이라는 가시적인 인상은 줄 수 있으나 평화의 확산 및 정착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지나치게 형식에만 치중하는 느낌을 주고 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닌 내용이다. 그

1) 평화의 섬 제주 만들기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예측하기 어려운 몇 가지 측면이 있다. 첫째, 평화의 섬 제주 만들기와 경제특구화 모형이 충돌할 수 있다. 둘째, 평화의 섬 제주 만들기의 주체들도 인정하는 것처럼 생태주의적 가치와 신자유주의적 발전의 논리가 충돌할 수 있다. 셋째, 평화의 섬 제주 만들기는 국내적, 국제적 연대가 없다면 성공하기 힘들 수 있다. 평화의 섬 제주 만들기가 평화운동으로 지속될 수 있다면, 권력정치 앞에서 무력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평화



러나 현재 그 내용적인 측면, 즉 평화의 내면화 및 정착의 토대가 되는 평화교육에 대한 국가 및 제주도 차원의 관심은 상당히 부족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세계평화의 섬」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도민들 사이에 평화 의식의 정착 및 내면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평화교육이 핵심적인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평화교육에 대한 관심은 미미한 편이다.

최근 제주평화학교 설립승인이 무산되었다. 지역언론에 의하면, 평화운동가와 교육자들이 2007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해 오던 제주평화학교가 충분한 공론화 과정 등을 거친 후 2008년 3월 개교할 방침이라고 밝힌바 있으나 결국 평화학교 설립계획이 철회되었다. "입시 위주의 교육체계에 내맡겨져 날로 힘을 잃어가는 학생들을 일으켜 새로운 학교를 통해 새로운 교육의 희망이 되고자 평화학교 설립을 준비하였으나 지역사회 공론화과정 부족 등의 이유 무산된 것이나 "설립 추진 과정에서 제주지역 사회에서 대안교육에 대한 열정이 학부모나 아이들에게서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대안교육운동이 제주지역은 아직 걸음마수준이지만 다양한 사례들을 연구경험해서 다음 그림을 그려나갈 것"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2006. 12. 1. 제주의 소리).

#### 4) 제주의 평화교육의 실시 방향

(1) "세계평화의 섬" 교육적 구현을 위한, 즉 평화의 확산, 정착 및 내면화를 위한 평화교육을 실시한다. 제주평화포럼 개최 및 제주국제평화센터 건립 등의 평화실천사업과는 별도로 일선 초·중등 교육기관에서 도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평화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도민들 사이에 평화 의식의 정착 및 내면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평화교육이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이다.

제주도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제주도에서의 평화교육은 일상적인 삶 속에서의 갈등에 대한 평화적 해결 교육, 전쟁과 평화 및 제주의 역사에 관한 교육, 그리고 환경·생태 교육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첫째, 갈등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갈등 해결에 대한 이해 및

왕따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갈등 해결 능력 함양을 위한 평화교육의 내용으로는 다름(difference), 차이의 수용을 통하여 공존, 다원적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확장시킬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며, 또한 다원화 시대에 다양성의 평화적 공존을 위하여 요구되는 관용(tolerance)과 비판적 사고(critical thinking) 및 사회적 정서능력(social emotional competence)을 기르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민정숙, 2006 : 79-87). 둘째, 전쟁 및 구조적 폭력과 평화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전쟁이라고 하는 폭력적 현상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고 동시에 전쟁을 억제하고 방지하기 위한 활동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기서는 전쟁이나 구조적 폭력으로 인한 참상의 부각보다는 평화가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이며, 이를 지키고 창조하기 위한 노력 및 능력이 필수적임을 교육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환경·생태교육이다. 제주도는 천혜의 관광지로서 생태 보존 및 환경 보전이 제주도의 생존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는 또한 자연과 인간이 평화롭게 공존할 때 인간의 질적인 행복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도 그 중요성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여기서는 단순히 환경이라는 물리적 환경에 국한된 지식과 정보의 전달이 아니라, 인간의 공동체적인 삶을 지향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룸으로써 인간의 생명을 보전한다는 평화교육의 이념과 그 궤를 같이 하면서 환경의 중요성 인식 및 환경에 대한 가치관과 의식의 변화에 많은 비중을 둘 필요가 있다.

(2) 평화교육을 위한 선결과제로는 다음의 몇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조성윤, 2003. : [<http://www.jdi.re.kr>]).

첫째, '평화의 섬 추진'에 대한 '제주 도민 홍보'가 중요하다. 제주 평화의 섬 구상과 평화 이미지를 만들어 가는 노력은 도민 스스로 그 필요성을 공감하고 적극 참여하려는 노력과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 많은 도민들이 아직 '평화의 섬'이 어떤 의미인지, 평화의 섬으로 지정 받으면 무엇이 좋다는 것인지 잘 모르고 있다. 그렇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레로부터, 손거히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으름을 스러해서 해져다구이

추진하는 형태가 아니라, 학계의 논의를 근거로 행정당국이 사업을 만들고, 중앙정부로부터 인정을 받고, 행·재정적 지원을 요구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왔기 때문이라고 본다. 지금부터라도 추진 과정을 도민들에게 홍보하고 토론하는 기회를 만들고,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받아 새로운 사업 계획을 짜는 작업에 나서야 할 것이다.

둘째, “제주도가 평화 이미지에 맞는 섬”이라는 ‘근거’를 마련하는 일이다. 제주도를 ‘평화의 섬’이라고 부르고 싶다면 제주도가 평화라는 이미지에 맞는 섬이라는 근거를 마련하는 일이 우선일 것이다. 특히 제주도민들이 평화를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해왔는지를 되짚어 보고 정리하는 작업이 앞서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사업이다. 4·3의 아픈 역사를 올바르게 치유해나가는 제주도민들의 노력이야말로 평화를 위한 가장 적극적인 활동이 될 것이다. 히로시마의 원폭 피해를 보여주는 평화 공원이 히로시마를 대표하는 명소임을 새삼 지적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유대인 학살 현장을 보존해 평화 교육의 순례지로 만드는 유럽인들의 노력을 주목해야 한다. 제주인의 입장에서도 아픈 기억을 적극적으로 치료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4·3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4·3 위령제를 전 도민이 관심을 갖는 엄숙한 제의로 승화시키고, 4·3의 현장을 중심으로 위령탑을 건립하고 기념관을 세워 산 교육장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를 전 세계에 알려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참극을 딛고 일어난 제주인들이 평화의 상징이 되어야 한다. 관련 역사 현장을 보존하고, 평화공원과 위령제를 통해 ‘평화의 섬’ 이미지의 내용을 채워야 한다.

셋째, 평화논의의 활성화 및 평화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제주도가 평화의 섬에 대한 한국의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는 4·3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부터 만들어야 한다. 4·3의 비극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전달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짜야 한다.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도민사회의 찬반양론을 보면서 평화를 가꿔나가야 하는 논의가 한국사회 전체에 너무 부족하다

1945년 전투 때 10만명 가량의 군인들과 15만명이 넘는 민간인이 동시에 죽음을 맞이한 비극적인 곳이다. 그곳에는 제주보다도 오히려 더 일찍부터 평화공원, 평화자료관을 건설하고, 평화교육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왔다. 지방정부, 지역 교사 및 다양한 시민단체의 노력에 의해서 자발적인 프로그램의 개발과 교육이 이루어져 왔다. 전국에서 오키나와로 모여드는 수학여행단을 대상으로 하는 평화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제공하고 있는 것도 그 보기가 될 것이다. 평화교육을 받으러 제주로 몰려오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도 당국이 모든 것을 주도하려 하지 말고, 오히려 시민단체와 교육기관들이 자발적으로 평화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추진하는 것을 지원하는 형태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평화교육 주도 기관 및 과목에 대한 연구 개발이 필요하다. 도내 대학의 역할이 매우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제주대 평화연구소의 적극적인 비전제시와 프로그램 개발, 참여가 중요하다. 대학 내의 정규 과목으로 평화관련 과목이 개설되고, 또한 한국 현대사에 있어서 민간인 희생자 문제의 연구 등을 주도할 수 있는 연구 기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도민이 잠재적 평화전도사가 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도민을 교육시켜야 함은 물론, 관광객에게는 평화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주에서 평화연수학교를 운영해야 한다. 또한 참가자에게는 제주 평화의 섬에서 발행하는 평화수료증을 발급하여 자부심을 느끼고 제주홍보에 앞장서는 평화전도사가 되게끔 하여야 한다(문성중, 2005 : 191). 만약 제주도가 전국적으로 평화 교육과 연구의 중심이 되려면, 제주도민들 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 주민들의 아픔도 함께 끌어안고 실태를 조사하고 해결책을 고민함으로써, 한국 현대사에서 민간인 희생 문제의 연구를 주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일련의 작업을 통해 평화의 중요성을 전 국민에게 인식시키고 제주에 가면 자연스럽게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인식을 심어 줄수 있어야 한다. 이 것이 평화의 섬 구상을 구체화시켜 나가는 주요 과제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 V. 결론

평화교육의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써 가정, 학교, 사회를 들 수 있다. 평화교육과 같이 가치관과 의식화에 관한 교육은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행하여져야만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학교에서는 체계적인 학습내용과 방법을 통해 아이들로 하여금 건전한 비판의식을 가진 성숙한 민주 시민이 되도록 하며, 사회의 모든 단체와 기관은 시민운동 차원에서 평화운동을 전개함으로써 국민들의 평화의 실천의지를 고양하도록 해야 한다.

오늘날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이 지나치게 비평화적이고 반 평화적이기 때문에 전쟁을 비롯한 각종 비평화적 현상에 대하여 무감각해지고, 평화문제에 대하여 무관심함으로써 평화에 대한 참여의식이 결여된 것이 평화교육의 가장 큰 장애물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력감이다. 비평화적 현실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모든 것이 정치적으로 결정되어지는 것이며 시민의 힘으로는 현 상태를 개선하거나 적극적으로 평화의 상태를 이룰 수 없다는 무기력감이 평화교육을 어렵게 만든다. 평화교육을 통하여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인간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구조적 갈등과 폭력에 대한 무관심과 무감각 그리고 무력감을 극복하는 길은 교육이외의 다른 방도가 없다. 이러한 인간의 가치관과 태도에 관한 문제는 어릴 때부터 의식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도 끊임없이 시민운동의 차원에서 평화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우리의 잠자고 있는 이성을 일깨워야 하며, 법과 질서의 이데올로기와 현상유지의 이데올로기를 극복하고, 인간을 모든 종류의 억압과 강제와 폭력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비판적 평화교육을 통해서 삶의 조건을 개선해 나갈 때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인간의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고, 정의가 구현되는 사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정영수, 1993: 190-191).

인간의 삶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다양한 갈등은 제대로 된 평화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천혜의 관광지라는 제주도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생태 보존 및 환경 보존이 제주도의 생존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환경교육을 평화교육의 영역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주장은 다소 생소하게 여겨질 수도 있다.

환경학의 목표인 환경보전은 '환경평화', '생태평화'이며, '지구와의 평화'이다. 환경파괴는 '지구와의 전쟁'이다. 평화학의 관점에서 보아도, 환경보전은 '적극적 평화'의 중요한 구성요소이며, 환경안전보장은 '인간의 안전보장', '민중의 안전보장'의 주요한 구성요소이다. 환경파괴는 '평화롭지 않은 상태'를 가져온다. 전쟁은 물론이고, 군사기지의 건설이나 일상적 활동, 또 군사훈련도 환경오염이나 자연파괴를 수반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환경문제는 주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왜냐하면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소위 부자나라에서나 가능하였던 것이며, 또한 후진국에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경제성장과 개발이 급선무였기 때문에 이러한 개발로 인해 후에 야기되는 환경오염의 문제는 관심의 뒷전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제 환경문제는 비단 선진국의 문제로만 인식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후진국에선 환경오염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은 그것이 바로 인간이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또한 자연과 인간이 평화롭게 공존할 때 인간의 질적인 행복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제주도의 미래를 위해 학생들에게 환경·생태의 중요성 인식 및 환경에 대한 가치관과 의식의 변화에 초점을 두는 교육이 필요하다. 제주의 생태를 지키지 못하면서 '세계평화의 섬'이라고 세계를 향해 손짓한다면 그 손짓에서 미래의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겠는가. 생태문제는 단순히 생태문제가 아니다. 일중일체다중일(一中一切多中一), 일즉일체다즉일(一卽一切多卽一)이기 때문이다(이주향, 2005 : 119).

2) 신라의 의상대사(義相, 625~702)가 남긴 불후의 명작인 범상계 즉 <화엄일승법계도(華嚴一乘法界圖)>는 화엄경(불교의 심오한 철학과 우주의 현상을 고차원적인 이론으로 설한 경전)의 대의를 요약하고 있다. "하나중에 일체있고 일체중에 하나

## 〈참 고 문 헌〉

- 고병헌(1994), "평화교육의 성격에 관한 연구 : 정치교육과 가치교육적 측면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고성준(2003). "세계평화의 섬 지정 및 전략사업 추진계획". 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 보고서.
- 고창훈 외(2003). "제주 '평화의 섬' 개념과 정책", 제주발전연구원 주최, <제주국제자유도시의 평화의 섬 지정 어떻게 할 것인가> 학술세미나발표논문.
- 고창훈(2004). "세계평화섬 발전전략으로서 제주평화화 정립과 평화산업 육성연구: UN의 인권존중과 UNESCO의 평화지향의 논리를 중심으로". 『동아시아연구논총』 15(1).
- 구갑우(2005). 한국의 평화운동과 평화의 섬 제주. 『평화도시국제컨퍼런스 자료집』
- 김명섭·조성대·진시원(2004). 『세계의 정치와 경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 김진호 외(2006). "제주형 평화모델 정립에 관한 시론: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경제적 복지공동체 대안을 중심으로" 『21세기 정치학회보』. 16(2).
- 김정환(1988). "평화교육학의 이론과 과제". 『교육문제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 문성종(2005). "관광과 평화 그리고 도시경제 발전 -제주도를 중심으로". 『평화도시 국제컨퍼런스 자료집』.
- 민정숙(2006). "한국사회의 갈등요소가 평화교육의 방향". 『교육의 이론과 실천』. 11(1).
- 박보영(1998). "평화교육에 관한 연구 : 한국에서의 평화교육 실천을 위한 이론적기초".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울평화교육센터편(1995). 『평화, 평화교육의 종교적 이해』. 내일을 여는

- 이근혁(1990). "평화교육이념에 비추어 본 한국교육의 과제분석". 고려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주향(2005). "세계평화의 섬과 생명평화철학". 『평화도시 국제컨퍼런스 자료집』.
- 장영권(2005). "한국평화운동 15년의 성과와 과제 - 평화조건·쟁점·전망 -". 『제주시 평화도시 추진 시민토론회 자료집 : 제주시를 평화도시로 어떻게 만들것인가』.
- 정영수(1993). "평화교육의 과제와 전망". 『교육학연구』 31(5).
- 제주발전연구원(2005). "제주평화의 섬지정에 따른 후속전략및 평화시민운동에 관한 연구", 제주발전연구원.
- 조성윤(2003). "제주의 평화교육". 제2회 제주평화포럼, 2003. 11.1.
- 제주시평화도시자문위원회·제주대평화연구소(2005. 6. 21 - 6. 22). 『평화도시 국제컨퍼런스 자료집』
- 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 (<http://peaceinstitute.cheju.ac.kr>).
- Daivid Hicks, *Education for Peace*, 고병현 역(1995). 『평화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원.
- Kimmo Kiljunen, Folke Sundman, Ilkka Taipale(1987). "The peace movement in Finland". *Finnish Peace Making*. Peace Union Of Finland.
- Vesa, Unto(1983). "Research on Peace Education in Finland". *Finnish Peace Making*. Peace union of Finland.
- Vesa, Unto(1982/83). "Peace Research in Finland. Domestic Spirits in Imported Bottles, or Vice Versa ?". *Finnish Peace Making*. Peace union of Finland.



<Abstract>

## Praxis for Jeju Peace Education - Finnish Peace Education's Implications -

Chang-Nam JIn · Sang-June Oh · Jin-Ho Kim

Jeju island has been declared as 'world peace of island' by Korean government formally. It means that Jeju is becoming the steppingstones, the center for world peace studies to delve into the international conflict academically. The concept of 'peace' has been searching for the ideal by the humankind for a long time, it is one of the main significant subject among others. With the establishments for accomplishing welfare, equality, justice, the positive peace in doing the ecological equilibrium presupposes the sustainable development criticizing the blind industrialization, coinciding the structural violence. With regard to this, peace education facing the global crisis stresses the importance as the imperatives for human survival and peaceful future. The designation for world peace of island is meaningful in making the peace welfare community for overcoming the conflict among the Jeju citizens such as 4·3 accident, harmonizing the nature and human. Thus, this paper examines Jeju peace education as the praxis for realizing the true world peace of island with special references to Finnish peace education.

**Key words:** world peace of island, positive peace, peace education, sustainable development, Finnish peace education